

# 최 신 판 례 예 규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

서면법인-3409, 2021.01.21

## 질 의

- 질의법인은 2017.6.22.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건물\*의 입주자 대표 회의로서

\*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

-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 의함

질의내용

-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
## 회 신

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
### Marketing Tax consulting

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이면 손금산입시기의 임의선택 불가능하며,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꼭 반영해야 함

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

서면법인-5988, 2021.01.29

## 질 의

-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, 질의법인이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(14.4.)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(18년) 완성됨
- 현재까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

질의내용

-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

## 회 신
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
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%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,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

서면법령법인-5277, 2021.02.02

## 질 의

- (질의1)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5%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 주식 중 당초 상속세를 부담하고 출연받은 주식(422,477주)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- (질의2) 질의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일부 주식 처분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에 따른 5% 초과분에 대한 과세대상 주식수를 결정할 때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처분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

## 회 신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20. 12. 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(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)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유 주식 중 출연 당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출연받은 해당 주식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,

해당 성실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

**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%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**

서면법령국조-4589, 2021.02.15

## 질 의

- 질의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투법인으로 '06.11월 신청한 조세감면이 승인됨에 따라 '09~'13 귀속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음

질의

- 여러 과세기간(100%감면기간과 50% 감면기간 포함)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결손금 발생 이후 배당을 하는 경우 결손금 보전 및 감면을 적용 방법

## 회 신
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국일 46507-211, 1994. 4. 19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국일46507-211, 1994.4.19.

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%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

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%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%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